

니-최 復興의 現代的 意義 (六)

安浩相

三, 原價値(生の 定義)

原價値는 오직 意慾하여진 價値로서 意志의 目的이다. 此 原價値라함은 實狀 우리 人間에게 損과 益이 못되는 同時에 幸과 不幸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. 그러나 우리의 意志의 目的인 原價値는 우리 人間이 이 世上에 出生하는 瞬間부터 墳墓에까지 行進하는 途中에 暫時라도 不可缺한 同伴者임을 否定할 수는 업다.

迷宮에 들너 있는 生과死와의 兩 極端 사이에 업지 못한 다리(橋□)를 形成하고 있는 其 原價値란 大體 무엇을 이름인가? 니-최는 이 問에 問答하여 「生」(Das Leben)이라는 簡單한 一字로 答하얏스니, 그는 生 그 自體를 究世에 肯定하여 말하되 生은 億萬 存在에 優越한 것이며 最高 貴한 것이라 評價하얏다. 그러나 그는 決코 그 生의 □□을 單純히 自己 個人의 生을 云謂함을 □하고 「生一般」을 廣範한 意味에서 評價하얏음을 밝힐 수 잇스니, 그는 말하기를 個人의 生이란 말이 全體 生의 大流에 한 줄기 發動과 恰似하여 生滅 又は 存亡을 免할 수 업을 뿐 아니라, 生의 大流를 爲하여서는 數億의 波動이 存하고 滅하며 다시 滅하얏다가 存하게 될 것이다. 生은 萬存의 根本原理요 同時에 萬成의 根本原理임으로서 生을 否定할 境遇에는 有와 成으로 된 이 宇宙를 同時에 否定하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. 生의 必要性和 生의 持支性 又は 生을 指向-식힌 諸要素는 卽 生에 對한 有價値物이다. 人生生活의 愉快와 苦痛, □□과 損害, 幸福과 不幸은 暫時라도 生을 떠나서는 存在할 수 업는 生의 同伴者로서 우리 生에 損害와 最極의 苦痛이 包□한다 할 지라도 그는 生이 生되게 하는대 가장 重要한 訓練인 生 意識함에 아울러 最大의 苦痛을 過渡하는 生은 最大의 能力을 吸收할 수 잇는 前提로 覺悟치 안하면 안될 것이다. 愉快와 苦痛, 苦痛과 愉快의 時間的 順序는 一切 生의 附屬된 必然物이며, 괴로운 것으로 或은 깃븐 것으로 生이라, 우는 生이 아니라 斷定할 수 업는 것이다. 愉快와 苦痛이 恒常 生의 領域을 떠날 수 업

는 同時에 괴로울 수 있는 것이나 깃들 수 있는 것도 生인 以上 愉快와 苦痛 그 自體는 否定할 수 있슬지언정 生 그 自體는 絶對로 否定할 수 업슬 것이다.

그럼으로 니-최는 「生을 原價値」와 同一視하는 □□ 此 原價値를 生理的 原價値로도 規定하얏다. 니-최에 잇서서 生과 原價値를 同一視한 主見을 우리는 通할 수 업다. 그는 말하기를 人生은 共同한 目的을 압패 두고 發展하며 前進하는 것임으로 人間의 發展과 前進 現象에는 無限한 障礙와 損害가 交友되여잇슴이 또한 事實인즉, 此를 排□하고 目的□를 向하는 □□를 行進 하려면 거긔엔 必然的으로 無限히 鬪爭이 必要될 것이다. 此 鬪爭을 敢行한 者가 卽 「生」이며, 이 鬪爭의 勝利者가 亦是 「生」이라 하여 可能함이다. 生이 否定될 때에 鬪爭이 업슬 것이며, 鬪爭이 업슬 때는 發達의 現象이 存立할 수 업슬 것이다. 生은 卽 鬪爭이요, 鬪爭은 恒常 生으로부터 由來하는 것이다.